



# 이븐 주바이르 시대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



남종국 | 이화여대

##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3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던 12세기 후반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sup>1)</sup> 하지만 7세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지중해를 매개로 맺어왔던 상호 관계의 역사는 유럽 중심주의적 편견과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주 왜곡되어 왔다. 지중해 역사에서 이슬람은 자주 교류와 접촉을 막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유명한 피렌스의 주장에 따르면 7-8세기 이슬람의 팽창으로 지중해를 통한 교역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 결과 동지중해로부터 유럽으로 수

---

1) Robert I. Burns, *Islam under the crusaders: colonial survival in the Thirteenth-Century kingdom of Valenc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Norman Daniel, *Islam and the West: the making of an image* (Oxford: Oneworld, 1993); G. Peyronnet, "Coexistence islamo-chrétienne en Sicile et au Moyen-Orient à travers le récit de voyage d'Ibn Jubayr voyageur andalou et pèlerin musulman", *Islamochristiana* 19 (1993), pp.55-73; H. E. Kassis, "Images of Europe and Europeans in some medieval arabic sources", A. E. C. Canitz and G. R. Wieland (eds.), *From Arabie to England. Medieval studies in honour of Mahmoud Manzalaoui on his 75th birthday* (Ottawa, 1999), pp.9-23; Alex Metcalfe, *The Muslims of Medieval Italy* (Edinburg: Edinburg University Press, 2009); James M. Powell (ed.), *Muslims under Latin rule, 1100-130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Brian A. Catlos, *Muslims of Medieval Latin Christendom c. 1050-16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입되던 상품들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인식은 15세기 오스만의 팽창이 다시 한 번 지중해에 철의 장막을 드리우게 되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sup>3)</sup>

연구사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대나 입장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서유럽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적대감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었다. 때론 이슬람과 기독교가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했음을 대비시켰다. 즉 이슬람은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기독교는 불관용적이었음을 주장했다.<sup>4)</sup> 그렇지만 이후 연구들은 서로 적대적인 두 세계가 공존이라는 해법을 찾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12세기 상호 접촉이 많았던 시리아의 라틴 왕국들과 시칠리아 섬에서는 나를 관용과 공존이 존재했음을 강조한다. 시칠리아 섬은 라틴인, 그리스인, 무슬림 그리고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한 섬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정복자와 종교적 소수 세력 사이의 관계가 공존이 아니라 탄압의 관계였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sup>5)</sup>

본 연구가 12세기 후반을 연구 대상 시기로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가 두 세계 사이의 갈등이 첨예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sup>6)</sup> 12세기 후반에는 중세 최대의 군사 원정이었던 3차 십자군(1189-1192)이 있었고 3차 십자군 전후로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사이 갈등과 상호 반목 그리고 비방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두 세계 사이의 상호 관계를 훨씬 더 잘 엿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시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상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료가 바로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이슬람교도인 이븐 주바이르(1145-1217)가 남긴 순례 여행기이다. 1145년 발렌시아에서 태어난 그는 재무 관리였던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첫 순례 여행을 떠날 당시 주바이르는 알모하드 왕조(1172-1212)의 관리였다. 1182년 주군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포도주를 마신 죄를 참회하기 위해 메카로의 순례를 결심했다. 1183년 2월 3일 그라나다를 출발한 주바이르는 메카와 메디나를 순례하고 2년과 3개월 반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1185년 4월 25일 고향으로 귀환했다. 그는 25년 후에 순례 여행기를 작성했다.<sup>7)</sup> 그의 순례 여행기는 이후 이슬람 여행자들의 순례 교본이

2) Henri Pirenne, *Medieval cities: their origins and the revival of tra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27).  
 3) David Abulafia (ed.), *The Mediterranean in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Ltd., 2003).  
 4) James M. Powell (ed.), *Muslims under Latin rule, 1100-130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4.  
 5) James M. Powell (ed.), *Muslims under Latin rule, 1100-130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7-8, 103.  
 6) 1174년 시칠리아 왕 굴리엘모 2세는 예루살렘 왕 아말릭과 연합하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했다. 1183년 9월 살라딘은 대병력을 이끌고 베트세안(Baisan)을 공격했다.  
 7) 그는 3차례 성지 순례(1183년, 1189년, 1217년)를 했고, 첫 번째 순례에 관해서만 여행기를 남겼다. R. J. C. Broadhurst, *The travels of Ibn Jubayr* (Jonathan Cape: London), 1952; Charles-Dominique, P., *Voyageurs arabes: Ibn Fadlân, Ibn Jubayr, Ibn Battûta et un auteur anonyme* (Paris: Editions Gallimard, 1995).

되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순례 여행기를 작성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그의 여행기는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등의 이슬람 영토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배하에 있었던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도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기독교 영토에 사는 이슬람교도들의 처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그의 여행기는 기독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관한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포도주를 마신 죄를 씻기 위해 순례를 결심할 정도로 강한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sup> 주바이르의 여행기 이외에도 그와 동시대인들이 남긴 여행기와 연대기, 공증인 문서, 외교 문서 등도 12세기 후반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관계를 알려줄 것이다.<sup>9)</sup>

그의 여행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븐 주바이르가 이슬람 선박이 아닌 기독교 선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두 종교 간의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기독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선상 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사이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것이다. 당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두 세계 사이의 상업 교류는 중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쉽다. 실제로 주바이르가 메카와 시리아 일대를 여행할 당시 살라딘과 기독교 십자군이 전쟁 중에 있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상호 인식이다. 즉 이슬람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 2. 기독교 선박에 승선한 이슬람 순례자

이븐 주바이르는 지중해 왕복 여행에서 모두 기독교 선박을 이용했다.<sup>10)</sup> 항해 도중 만난 다른 선박들도 모두 기독교 선박이었다. 그는 북아프리카 세우타 항에서 1183년 2월 29일 제노바 선박에 승선했고, 같은 해 3월 26일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 메카

8) David Thomas and Alex Mallett (eds.), *Christian-Muslim relations. A bibliographical history, volume 4 (1200-1350)* (Leiden and Boston: Brill, 2012), p.160; G. Peyronnet, "Coexistence islamo-chrétienne en Sicile et au Moyen-Orient à travers le récit de voyage d'Ibn Jubayr voyageur andalou et pèlerin musulman", *Islamochristiana* 19 (1993), p.70.

9) William of Tyre, Jacques de Vitry, Ibn Shaddad, Usamah Ibn Munqidh, Benjamin of Tudela, al-Idrisi. Ibn Munqidh, U. 2008. *The book of contemplation: Islam and the Crusades (ed. and trans.)* P. M. Cobb, London: Penguin Classic; Benjamin, S. 1995. *The world of Benjamin of Tudela: A medieval Mediterranean travelogu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De Vitry, J. 1960. *Lettres de Jacques de Vitry (1160/1170-1240), évêque de Saint Jean d'Acre* (ed.) R. B. C. Huygens, Leiden: Brill. Leonard, Chiarelli, "Al-Idrisi's description of Sicily: a critical survey", *Scripta Mediterranea* 1 (1980), pp.3-43.

10) 지브롤터 해협을 건널 때 어떤 선박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순례를 마친 주바이르는 1184년 10월 18일 시리아의 항구 도시 아크레에서 다른 제노바 선박에 승선해 귀향길에 올랐다. 이 선박에는 주바이르를 포함한 50명의 이슬람 순례자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12월 8일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 근처에서 난파했다. 시칠리아 왕의 도움으로 구조된 주바이르는 메시나에서 12월 18일 소형 선박에 탑승해 또 다른 시칠리아의 항구 도시 테르미니(Termini)로 향했다. 그곳에서 다시 다른 선박을 임대했는데 선원들은 그 지역 출신들이었다. 목적지는 팔레르모였고, 그곳에서 1주일 머문 후에 트라파니(Trapani)로 가는 선박에 승선했다. 시칠리아 항구를 오가는 이들 소형 선박들은 주로 시칠리아 선박이었을 것이다. 트파파니에는 안달루시아로 출항 예정인 선박과 북서아프리카의 세우타로 가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었다. 두 선박의 소유주는 모두 제노바 출신이었다. 1185년 3월 13일 팔레르모 항구에서 안달루시아로 가는 제노바 선박에 탑승했다. 주바이르가 승선한 선박은 다른 두 척의 기독교 선박과 함께 항해했다. 도중에 200명이 넘는 마그레브 출신의 순례자들 태운 또 다른 제노바 선박과 우연하게 만서서 4척이 선대를 지어 서쪽으로 향했다. 우연히 조우한 선박에는 주바이르와 함께 그라나다를 출발했던 일행들도 있었다. 메카에서 서로 헤어진 후 소식을 몰랐던 주바이르와 일행들은 목소리를 높여 서로의 안녕을 물어보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마 4척의 제노바 선박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안달루시아와 북서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이슬람 순례자들이었을 것이다. 주바이르의 선박은 1185년 3월 15일 카르타헤나 항구에 도착했다.<sup>11)</sup>

위에서 살펴본 이븐 주바이르의 바다 여정처럼 12세기 후반 지중해 바다에서 이슬람 출신의 순례자나 상인들이 기독교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의 항해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기독교 선박들이 북서아프리카의 세우타와 튀니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안달루시아의 데니아와 카르타헤나 등 대표적인 이슬람 항구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이다.

주바이르는 지중해 왕복 항해에서 한 달 이상 다수의 기독교 승객들과 함께 지내야 했다. 이교도이자 종교적 적들과 한 배에서 생활하는데 당연히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여행기에는 같은 배를 탄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바다였다. 당시 바다 항해는 종종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었다. 주바이르는 자신의 목숨과 운명이 전적으로 신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악천후와 폭풍이 발생할 때마다 신에게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sup>12)</sup> 이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11) R. J. C. Broadhurs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362.

12) 이븐 주바이르는 사르디니아에서 시칠리아로 항해하는 도중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났다. 그는 “절망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켰고 이슬람교도들은 손을 들어 위대한 영광의 신께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이 상태로 하루 종일을 보냈다.”고 여행기에 적고 있다. R. J. C. Broadhurs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p.27-28; I. Netton, “Ibn Jubayr. Penitent pilgrim and observant traveller”, *Islamic and Middle Eastern geographers and travellers : critical concepts in Islamic thought*, I. R. Netton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pp.85-86.

는 별것 아니었다. 물론 선상에서 기독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긴장감은 있었지만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sup>13)</sup>

주바이르는 자신의 여행기에 제노바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위대한 영광의 신의 권능과 도움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제노바 선박에 승선할 수 있었다.”라고만 진술했을 뿐이다. 귀로에 아크레 항구에 도착한 주바이르는 북서아프리카의 부지로 출항 예정인 선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박에 승선하려고 했었다. 그는 이 선박이 기독교 선박인지 아니면 이슬람 선박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이슬람 선박이었다면 기쁨을 표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승선한 선박은 대형 제노바 범선이었다. 그는 승선하는 순간을 “무슬림들은 프랑크 인들과 분리된 자리를 얻었다. 순례자들이라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승선했다. 그들은 예루살렘 순례를 다녀오는 길이었고,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었지만 대략 2천 명이 넘었다. 은총과 은혜의 신께서 그들과의 동행에서 우리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려다 주시길 기원합니다.”라고 회상했다. 기독교 순례자들과 동행해야 하는 괴로움에서 빨리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전부였다. 그리고 선상에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공포 등의 감정을 표출하지도 않았다. 이는 이슬람 순례자가 기독교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꽤 일상적인 일이며, 순례자들이나 상인들은 종교의 차이에 상관없이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4)</sup>

### 3. 중단 없는 교역

이븐 주바이르의 여행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전쟁 중에도 교역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시리아 지역을 여행할 당시 살라딘과 귀 드 루지냥의 십자군 군대 간의 전투(Al-Fule 전투: 1183년 9월과 10일)가 한창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를 여행했던 유대인 벤자민(Benjamin of Tudela)도 기독교인의 적대적인 행위와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잦은 유혈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이슬람 왕조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기독교 상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슬람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교황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알렉산드리아로 몰려든다고 말했다.<sup>15)</sup> 실제로 이슬람 상인과 순례자들은

13) R. J. C. Broadhur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325.

14) 그가 귀로에 제노바 선박에 승선했던 아크레 항구는 기독교 영토였는데 이슬람 상인들도 이곳으로 와 장사를 하고 있었다. R. J. C. Broadhur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26, 301, 318, 325, 362; Ian Richard Netton, *Seek knowledge: thought and travel in the house of Islam* (Richmond: Curzon press, 1996), p.96; G. Peyronnet, “Coexistence islamo-chrétienne en Sicile et au Moyen-Orient à travers le récit de voyage d'Ibn Jubayr voyageur andalou et pèlerin musulman”, *Islamochristiana* 19 (1993), p.57.

15) S. Benjamin, *The world of Benjamin of Tudela: a medieval Mediterranean travelogu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95), p.272.

기독교 영토를 통과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기독교 상인과 순례자들은 이슬람 영토로 들어갈 수 있었다. 주바이르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슬람 대상들은 기독교 영토를 통과해 다마스스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 왕국을 거쳐 아크레 항구까지 가서 교역을 했다.<sup>16)</sup>

주바이르의 여행기뿐만 아니라 유럽 사료들도 증명하듯이 당시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교역이 활발했던 곳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왕국의 아크레, 노르만 지배하의 시칠리아 섬 그리고 마그레브의 튀니스였다. 십자군 왕국 내에서 이슬람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아크레였다. 항구 도시 아크레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버금가는 국제 시장이었고, 지중해 전역에서 기독교와 이슬람 상인들이 거래를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sup>17)</sup>

12세기 후반 베네치아 상인 로마노 마이라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왕국의 아크레,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연결하는 삼각무역을 했다. 삼각무역에서 수송은 주로 이탈리아 선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마이라노도 자신의 선박을 가지고 세 항구를 오가면 장사를 했다. 그는 비잔티움 제국의 올리브를 알렉산드리아로 수출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주로 후후, 계피, 생강 등의 향신료를 구입했다. 13세기 초 알렉산드리아 시장에는 3천 명의 이탈리아 상인들이 활동할 정도로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상업 교역이 번성했다.<sup>18)</sup>

12세기 후반 시칠리아 섬은 기독교와 이슬람 상인간의 교역이 가장 번성했던 3곳 중 하나였다. 이 섬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혼재해 있었다. 3세기 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시칠리아는 830년대부터 약 250년간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 11세기 말 노르만족들이 이 땅을 정복했다. 어쨌든 250년간의 이슬람 지배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수용했고 그래서 노르만 치하의 시칠리아 섬에는 소수의 기독교 지배자들과 다수의 이슬람 피지배민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븐 주바이르가 시칠리아 섬을 방문했을 당사가 바로 노르만 치하였다. 게다가 이븐 주바이르가 메시나 근처에서 난파당했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은 시칠리아 왕 굴리엘모 2세였다. 당연히 주바이르에게 굴리엘모 2세는 목숨을 구해주고 여비까지 챙겨준 고마운 왕이었다. 기독교도였지만 그는 아랍어를 읽고 쓸 수 있었으며 자신의 궁정에 다수의 이슬람교 관리와 조언자들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시칠리아 왕이 이슬람과의 교역을 장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 R. J. C. Broadhur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p.300-301.

17) R. J. C. Broadhur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p.318-319.

18) Jean Claude Hocquet, "La vie mouvementée du marchand Mairano", *Historia*, no.88 (2004), p.15; D. M. Nicol, *Byzantium and Venice. A study in diplomatic and cultur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105.

실제로 주바이르의 증언처럼 “트라파니(Trapani)에서 튀니스까지는 하루거리밖에 되지 않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이 교역이 중단된 적이 없었다.”<sup>19)</sup> 그는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에서 이슬람 노예들을 목격했고, 노예거래를 비판했다. 사르디니아에서는 80명가량의 이슬람교도들이 노예로 거래되었다는 정보를 들었다.<sup>20)</sup> 주바이르는 테르미니(Termini) 지방은 땅이 비옥하여 수출할 정도로 많은 곡물을 생산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시칠리아에서 생산된 곡물이 북서아프리카로 수출되었다. 벤자민은 곡물은 시칠리아 제일의 수출 상품이며, 수출되는 곡물 중 가장 많은 양이 북서아프리카로 간다고 말한다.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상인들이 시칠리아에서 곡물을 구입함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과의 전쟁비용을 제공하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sup>21)</sup>

제노바 공증인 계약서는 12세기 후반 시칠리아에서는 노예와 곡물 이외의 상품들도 활발하게 거래되었음을 보여준다.<sup>22)</sup> 주바이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단은 시칠리아의 수출상품 중 하나였다. 이슬람교도들이 왕실 소유의 작업장에서 비단을 생산했다. 벤자민은 고급 비단이 메시나 항구로 통해 해외로 수출된다고 이야기한다.<sup>23)</sup>

12세기 후반 지중해 수송은 점차 기독교 선박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주바이르가 이슬람 선박이 아니라 제노바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러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주바이르가 2년 동안 지중해 여행을 하면서 이용하거나 마주쳤던 선박들 대다수가 제노바 선박이었다.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이슬람뿐만 아니라 다수의 북서아프리카 출신의 이슬람 순례자들도 기독교 선박을 이용해 메카 순례를 다녀왔다. 1185년 제노바 선장 마르코는 200명의 북서아프리카 이슬람 순례자들을 동지중해로 수송했다. 물론 지중해에서 이슬람 선박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결코 아니었다.

#### 4. 적대감과 현실적인 공존

7세기 이후 지중해 세계는 서유럽 기독교 세계, 그리스 정교의 비잔티움 제국 그리

19) R. J. C. Broadhurs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362; R. Morozzo della Rocca and A. Lombardo, *Documenti del commercio veneziano nei secoli XI-XIII* (Torino, 1940), p.152..

20) R. J. C. Broadhurs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27; T. J. Smit, *Commerce and coexistence: Muslims in the economy and society of Norman Sicily*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1995), pp.64-65, 165-167.

21) 제노바 상인들도 12세기 시칠리아 곡물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S. Benjamin, *The world of Benjamin of Tudela: a medieval Mediterranean travelogu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95), p.272; T. J. Smit, *Commerce and coexistence: Muslims in the economy and society of Norman Sicily*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1995), p.60, 161, 163.

22) T. J. Smit, *Commerce and coexistence: Muslims in the economy and society of Norman Sicily*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1995), p.101.

23) T. J. Smit, *Commerce and coexistence: Muslims in the economy and society of Norman Sicily*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1995), pp.64-65, 165-167.

고 이슬람 세계가 교류하는 공간인 동시에 서로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는 전쟁터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십자군 시대에 서유럽 기독교도들은 이슬람 영토를 공격한 침략자, 이슬람의 불구대천의 원수, 이슬람교도들을 학대하는 이교도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십자군 시절인 12세기에 시리아의 기독교 왕국들과 시칠리아에서 상호 공존과 관용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노르만 지배하의 시칠리아 섬은 라틴인, 그리스인, 이슬람교도들,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한 사회로 언급된다. 반면 Michel Balard는 “기독교와 이슬람 두 세계는 각자 서로의 영역을 지키고 있었고 상호 접촉은 간혹 있었고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호 불신의 원인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유들이 많다.”라면서 갈등과 불관용이 지배적이었음을 강조했다.<sup>24)</sup>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세계의 상호인식이 시대와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랐다는 것이다. 특히 십자군 전쟁은 상호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 두 세계는 서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서로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다. 이슬람 세계는 기독교인들을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으로 2등 민족으로 간주했다.<sup>25)</sup> 십자군 열기가 고조되면서 교회는 이슬람교도들이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이교도이자 섬멸해야 할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 십자군의 첫 공격 대상은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계였다. 이에 맞서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계는 기독교도들을 신앙의 적으로 간주하고 기독교 세계를 섬멸해달라고 신에게 호소했다.

그렇다면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던 12세기 후반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이슬람교도였던 이븐 주바이르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는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를 다른 영역으로 구분지어 생각했다.<sup>26)</sup> 분명히 그는 감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신앙이 없는 이교도로 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전 이슬람 세계가 단결하여 기독교 지배에 맞서고 기독교 왕국의 지배하에 있는 시리아 땅을 다시 찾기를 희망했다. 그는 신이 이슬람교도가 불신자들의 땅에 사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독교를 섬멸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sup>27)</sup> 이븐 주바이르의 순례 여행기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의 적대감과 불신이 매우 강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기독교도들을 돼지라고 경멸했고, 아크레는 더러운 기독교 돼지들 냄새로 코를 찌르고 불결하다면서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다.

24) David Abulafia, “The end of Muslim Sicily”, in *Muslims under Latin rule, 1100-1300*, J. M. Powell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103; Michel Balard, *Les Latins en Orient (XIe-XVe siècle)* (Paris: PUF, 2006), p.149.

25) H. E. Kassis, “Images of Europe and Europeans in some medieval arabic sources”, A. E. C. Canitz and G. R. Wieland (eds.), *From Arabie to England. Medieval studies in honour of Mahmoud Manzalaoui on his 75th birthday* (Ottawa, 1999), p.17.

26) 그는 이슬람 영토인 이집트 관세청의 고압적인 수색과 과다한 관세 부과에 놀랐고 이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G. Peyronnet, “Coexistence islamo-chrétienne en Sicile et au Moyen-Orient à travers le récit de voyage d'Ibn Jubayr voyageur andalou et pèlerin musulman”, *Islamochristiana* 19 (1993), p.61.

27) R. J. C. Broadhurs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27.



기독교 영토에서 고생하는 이슬람 노예들과 포로들의 비참함과 불운을 목격한 주바이르는 고통과 연민을 느끼면서 격하게 분노했다. 그가 목격한 이슬람 포로들은 족쇄를 차고 있었으며 노예처럼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고, 포로로 잡힌 이슬람 여성들도 다리에 쇠고리를 차고 중노동을 해야 했다.<sup>28)</sup> 그러나 기독교 영토에 사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이런 비참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주바이르의 여행기에는 기독교 왕국에서 출세해서 부유하게 사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온다.

어쨌든 현실에서의 실제 삶은 이러한 종교적 증오와 격렬의 언어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는 노예가 아닌 이슬람교도들이 시리아의 기독교 왕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영위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마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로에 그가 목격한 것은 기독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였다. 이 지역을 통과할 당시 십자군과 살라딘이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과 순례자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제제를 받지 않고 이 지역을 오갈 수 있었다. 이븐 주바이르 자신도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꽤 놀라워했다. 게다가 그는 예루살렘 왕국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이슬람교도들이 괜찮은 대접을 받고 있어서 기독교로 개종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워 했다.<sup>29)</sup> 1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연대기를 남긴 Fulcher of Chartres는 12세기 초반 라틴 기독교 왕국에서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조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었음을 증언한다.<sup>30)</sup>

이븐 주바이르의 여행기보다 이븐 우사마 이븐 문키드(Usama Ibn al-Munqidh 1095-1188)의 저술(『나의 견해』)이 당시 시리아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려준다. 시리아 귀족 가문 출신으로 샤이자르의 태수였던 문키드는 기독교도들과의 전쟁에도 자주 참여했고, 평화 시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sup>31)</sup> 그가 본 기독교 십자군들은 여러 면에서 열등한 집단들이었다. 그는 프랑크 족들이 센스가 없고 행동이 거칠며, 질투나 수치심이 없고, 무엇보다도 의학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호 분쟁을 결투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프랑크인들의 행동을 의아해했다. 그렇지만 그가 몇몇 프랑크 인들과 맺었던 “친교”는 이곳이 과연 십자군 전쟁이 한창인 전쟁터였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는 안티오키아에 사는 프랑크인 “친구”의 초대를 받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프랑크인은 손님의 종교를 배려해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았고, 식사 후에 시장에서 만난 프랑크 여인의 공격으로부터 손님을 구했다. 그 여인은 이슬람 병사

28) R. J. C. Broadhur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321-322; B. Kedar, “The subjected Muslims of the Frankish Levant”, *Muslim under Latin rule*, J. M. Powell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152.

29) R. J. C. Broadhur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p.301-302; G. Peyronnet, “Coexistence islamo-chrétienne en Sicile et au Moyen-Orient à travers le récit de voyage d'Ibn Jubayr voyageur andalou et pèlerin musulman”, *Islamochristiana* 19 (1993), p.64.

30) A. G. Krey, *The First Crusade: the accounts of eyewitnesses and participa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21), pp.280-281.

31) Ibn Munqidh, *The book of contemplation: Islam and Crusades*, P. M. Cobb (trans. and ed.) (London: Penguin Classic, 2008); 시오노 나나미, 『십자군 이야기 2』, 송태욱 옮김 (문학동네, 2011), 224-236쪽.

에게 아들을 잃은 분함에 문키드를 공격했고, 주변의 프랑크 인들도 문키드를 에워싸면서 상황은 험악해졌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또 어떤 프랑크인은 문키드에게 아들을 데려가 양육하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키드는 프랑크 친구의 우정 어린 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기독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문키드 또한 자신의 책 서문에는 “신이여, 이 불신의 무리를 벌하소서.”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왕국이 왕국 내에 있는 이슬람교도들을 우호적으로 대우한 이유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나 관용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소수의 정복자들인 기독교도들이 다수의 이슬람교 원주민들을 큰 저항 없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관용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슬람교도들의 저항을 줄이고 그들로부터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 당국은 이슬람교도들의 신앙생활을 허용하는 포용력을 과시했다.<sup>32)</sup>

12세기 시칠리아의 상황도 라틴 왕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바이르가 시칠리아를 여행할 당시 왕이었던 굴리엘모 2세는 이슬람교도들에게 고위관직을 맡기고, 이슬람 사원을 허용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아랍어를 읽고 쓸 수도 있었다. 포로나 노예로 끌려온 이슬람교도들은 비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지만 일반 이슬람교도들은 정부 관리로, 상인으로, 장인으로, 농부로 생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주바이르는 시칠리아의 이슬람교도들이 크게 박해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며 이슬람 사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sup>33)</sup> 그래서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노르만 지배하의 시칠리아 왕국을 종교적 관용의 사례로 간주해왔다. 로저 1세의 왕실 예배당은 이슬람, 비잔티움 그리고 서유럽 문화의 혼합과 공존을 상징하며, 이슬람 관리와 지식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노르만 왕들의 정책은 종교적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sup>34)</sup>

그러나 이븐 주바이르는 시칠리아 섬의 이슬람교도들이 누리는 혜택들이 매우 불안정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압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처럼 이러한 호의나 우호적인 관계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었다. 북서아프리카의 알모하드 술탄과 비밀스럽게 접촉하는 이슬람교도들이 있었고, 물론 종교적 이유보다 경제적 이유가 더 컸지만 1190년 팔레르모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이 봉기를 일으켰다.<sup>35)</sup> 그만큼 상

32) 시칠리아와 비교해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라틴인의 지배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했고 기간도 짧았다. B. Kedar, “The subjected Muslims of the Frankish Levant”, *Muslim under Latin rule*, J. M. Powell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135; G. Peyronnet, “Coexistence islamo-chrétienne en Sicile et au Moyen-Orient à travers le récit de voyage d’Ibn Jubayr voyageur andalou et pèlerin musulman”, *Islamochristiana* 19 (1993), p.66-67.

33) R. J. C. Broadhurst, *The travels of Ibn Jubayr* (London: Jonathan Cape, 1952), p.339.

34) Douglas는 공존을 강조하는 반면 Abulafia는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 D. Abulafia, “The end of Muslim Sicily”, *Muslims under Latin rule, 1100-1300*, J. M. Powell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103; D. C. Douglas, *The Norman fate, 1100-1154* (London, 1976), pp.146-149; Ernst Kitzinger, *The art of Byzantium and the medieval West* (Bloomington, 1976), pp.290-313.

호 관용과 이해는 취약한 것이었고, 언제라도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종교적 적대감이 표출될 수 있었다.

게다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에서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원한은 쉽게 잠재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시장에서 문키드를 공격한 프랑크 여인이나, 기독교로 강제로 개종하고 혼인해 아이를 낳고 결국에는 기독교 남편을 살해한 이슬람 여성에게 상대방은 물리쳐야할 적이자 불신앙의 악마였을지도 모른다.<sup>36)</sup>

## 5. 나가며

본문에서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작은 결론은 12세기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를 “공존과 관용”, 또는 “탄압과 불관용”으로 단순히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지역에서도 공존과 관용은 탄압과 불관용과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다. 종교뿐만 아니라 신분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관계는 달라졌다. 또 다른 결론은 신앙의 시대로 간주되는 십자군 시절에도 교역이 신앙과 종교보다 우선시되었다는 것이다. 전쟁 중에도 상인과 순례자들의 통행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순례자와 상인들은 타 종교권의 선박을 공포나 두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35) 1220년대 프리드리히 2세는 반란을 일으킨 이슬람교도들을 이탈리아 남부 루체라(Lucera)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D. Abulafia, “The end of Muslim Sicily”, *Muslims under Latin rule, 1100-1300*, J. M. Powell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103; A. Metcalfe, *The Muslims of medieval Ital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pp.214-225; G. Peyronnet, “Coexistence islamo-chrétienne en Sicile et au Moyen-Orient à travers le récit de voyage d'Ibn Jubayr voyageur andalou et pèlerin musulman”, *Islamochristiana* 19 (1993), p.69, 72.

36) Ibn Munqidh, *The book of contemplation: Islam and Crusades*, P. M. Cobb (trans. and ed.) (London: Penguin Classic, 2008), p.152; Benjamin Kedar, *Crusade and mission: European approaches toward the Muslim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79.